

치 사

**신묘년 새해에도 불자여러분 가정
마다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길 기원합
니다. 아울러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널리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불자들과 불교
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불교는 17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써
오랜 전통과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교와 문화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불교역사와 문화를 단순한 종교적 가치로 치부하는 작금의 현실은 편향된 인식과 그에 따른 그릇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우리 조계종은 지난 1월 26일에 담화문을 발표하여 출·재가를 막론한 범종단적인 자성과 쇄신결사의 길을 함께 걸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익에 국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우리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현실을 향해 불교가 먼저 소통하고 화합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을 통한 자성과 쇄신을 그 자양으로 삼고 국민과 사회를 향해 자비를 근본으로 하는 불교의 가치에 따라 상호 존중하는 속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작되는 자성과 쇄신결사의 길에 불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종단에서는

각 교구와 지역별로 ‘민족문화수호위원회’의 결성을 추진하고 결사 운동의 의지를 모아 종단 전체의 수행, 문화, 생명, 나눔, 그리고 평화결사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토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조계종 재가신도들의 대표 단체인 중앙신도회가 오늘을 기점으로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실천 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종단에서는 교구 신도회와 신행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과 걱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기점으로 전국의 불교 지도자 여러분들이 모여 민족문화수호와 보존을 위한 ‘민족문화수호기금’ 모금 운동을 시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굳건한 의지는 분명 민족문화수호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신도회에서는 여러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며 사회적 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올해에는 그 모든 사업이

**더욱 더 큰 결실과 발전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롭게 시작되는
이 자성과 쇄신을 위한 결사와 민족
문화 수호를 위한 실천에 불교 지도자
여러분들이 큰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중앙신도회의 신년회를 맞아
불자여러분들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길 축원하며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를 중심으로 한국불교가
국민과 불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민족종교로 다시 서는 그 날까지**

**다함께 수행 정진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불기2555년 2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